

##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 서류심의 심의평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 신청자는 모두 850명이었다. 미술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극, 음악, 영화, 문학, 무용, 대중예술, 사진, 국악, 만화, 건축 등의 순서로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이 높았고,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정책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서류 심의는 모두 9명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었고, 미술 분야(3명), 문학·연극·무용 분야(3명), 음악·국악·사진·건축·영화·만화·대중예술 분야(3명)를 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들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파견기업·기관은 물론, 참여예술인을 연결하는 사회적 정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술인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제출한 참여동기와 참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의 성실성, 사업의 이해, 대상의 이해,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 활동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해 심의에 임했다.

각 기업·기관에 파견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미적 교육론을 제기한 미학자 프리드리히 실러(1759-1805)는 희곡 『발렌슈타인』 프롤로그에서 “삶은 진지하고, 예술은 명랑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생존 자체를 위한 활동이 기본이 되는 현실의 삶과 달리 예술 작품의 내용이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비극적인 것이라도 가상이기에 명랑하다는 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 행위는 일상적 목적이 없는 미적인 가상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미적 가상을 현실에서 분리하고자 한 실러의 이러한 주장은 예술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실러가 “가상은 오직 정직한 한에서만, 그리고 독자적인 한에서만 미적인 것”이라고 『미학 편지』(1795) 가운데 <스물여섯째 편지>에서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실과 미적 가상을 분리하는 실러 미학이 ‘자유를 통해 자유를 주는’ 미적 국가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물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실러가 꿈꾼 미적 국가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적 국가로 가는 유일한 패스포트는 ‘자유를 통해 자유를 주는’ 방법에 있다고 선언한 실러의 미적 교육론이 오늘날 생존의 위기에 처한 예술인들의 새로운 역할모델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기업·기관에 파견된 퍼실리테이터들이 참여예술인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기업·기관의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사유와 행동을 통해 희망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은 희망 없이는 불가능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퍼실리테이터들이 오직 노동

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는 기업·기관을 일상의 강박된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자유를 허락하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 참여 예술인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경험을 나누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예술(lebenskunst)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술 분야의 경우 신청 예술인들의 사업계획서는 대체로 우수했다. 특히 예술인의 노하우가 사업계획서에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장르 혹은 경험에 국한된 활동계획이 다수였고, 일부의 경우 본인의 프로젝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다소 유감스러웠다. 결국 본인의 작업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미술인들도 사업의 구체성이 명료해 선정된 사례도 있었고, 반면 퍼실리테이터 참여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성도가 미진하여 선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퍼실리테이터 참여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의 서류는 뚜렷한 기대성과와 구체적 실행계획 측면에서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였다.

문학과 무용 분야의 경우 신청자들이 비교적 본인의 기획이 분명한 경우가 많았고, 연극 분야는 연극수업 위주로 기획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학과 무용, 연극분야의 심의에서도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적절한 로드맵을 제시한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음을 밝힌다. 특히 전반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에서 제외했다. 무용 분야의 신청자들이 비교적 확실한 본인의 기획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고 깊었다.

음악·국악·사진·건축·영화·만화·대중예술 분야의 신청자들 또한 이미 3년간의 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개괄적인 이해와 프로세스가 예술계에 숙지된바, 지원서의 내용이 사업 목적성과의 부합도가 높았다. 그러나 사업동기와 사업계획에서 예술가들의 기업 내 예술적 개입 활동에 대한 구체성 있는 이해가 드러나기보다는 사업 내에서 강조해 온 개념들만 부유하는 경우가 다수 보였다. 기업·기관과 예술인의 니즈는 거론하지만, 그들이 협업해서 구현할 프로젝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참여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참여 성과를 책임 있게 인도해야 할 퍼실리테이터로서 기업 내 ‘예술적 개입’이라는 개념이나 이전 사례들에 대한 사전 조사나 구상이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퍼실리테이터 유경험자들의 문제의식 또한 퍼실리테이터 신규 신청자들의 그것과 크지 않은 점은 다소간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기업·기관은 또 하나의 생활세계라고 할 수 있다. 생활세계로서의 기업·기관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벽은 없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측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변화로 가는 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하는 나 자신부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기쁘게 함께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공자가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의 마음 상태를 강조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이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예술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7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서류심의위원 일동